



즉시 배포용: 2018 년 5 월 2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가석방 상태에 있는 뉴욕 주민 그룹의 투표권을 복원시키는 최초의 조건부 사면 단행

첫 번째 조건부 사면 그룹에 포함된 24,000 명이 넘는 주민

교도소에서 출감한 후 지역사회 감독 하에 성공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투표권 복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지역사회 감독 하에 24,086 명의 투표권을 복원시키는 첫 번째 조건부 사면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광범위한 형사 사법 개혁을 바탕으로, 이 사면 그룹은 시민의 참여를 향상시키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 4 월 18 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따릅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법(New York State Election Law)은 중범죄로 투옥된 후 가석방 상태에서 투표권을 상실한 주민 개인의 투표권을 주지사의 사면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권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회에 진 빛을 갠 온 뉴욕 주민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해당 지역사회에 복귀한 남녀 주민의 권리를 복원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재범을 줄이기 위해 돕는 사회 복귀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사면을 승인하는 주지사의 조치는 유색 인종의 뉴욕 주민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영향 하의 개인에 대한 제한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뉴욕 주민이 가석방 상태로 인해 투표권을 잃은 인구의 71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 기본권의 복원은 재범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시민 사회에 투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개인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으로 거주하는 데 더 큰 이해 관계가 있을 때, 민주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진하고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가석방 감독 하에 있는 주민들에게 투표권이 의미하는 바를 그들의 말로 들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주지사는 사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에 대해 조사한 후, 담당 가석방 담당관과 필요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검토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해당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습니다. 나머지 신청은 검토 및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는 매월 반복됩니다. 반대로 사면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 위반으로 뉴욕주 교도소에 재수감되거나 새로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전에 받은 사면은 취소됩니다.

오늘 단행된 사면은 오직 투표권만을 복원합니다. 사면을 받은 사람의 유죄 판결이나 신분 상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면을 받은 사람 각각은 가석방 담당관으로부터 유권자 등록 양식과 함께 사면증 사본을 받게 됩니다. 검토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주지사의 관대한 처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Donna Lieberma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면으로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우리의 정치 절차를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며 모든 뉴욕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투표는 다른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 진보적인 조치는 뉴욕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사면 업무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주민들이 유권자로 등록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그들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브레넌 법무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 민주주의 프로그램(Democracy Program)의 Sean Morales-Doyle 법률 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면 그룹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조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절차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24,000 명의 시민들이 마침내 우리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행동 네트워크(National Action Network)의 대표 겸 창립자인 Al Sharpton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민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로 복귀하는 주민들에게 뉴욕의 민주적 절차에 공헌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며, 이 주민들은 앞으로 오랜 기간 더 훌륭하고 강력한 주를 만들기 위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보컬-뉴욕(VOCAL-NY)의 Alyssa Aguilera 공동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지사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은 투표권 제한은 노예 해방 후에 특히 유색 인종 및 흑인들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뉴욕은

가석방 중에 있는 주민들의 권리가 절대로 박탈되지 않도록 투표권을 복원시키는 중요한 절차를 마침내 밟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승리를 공식화하기 위해 이 행정명령이 법률로 전환되어 국가적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주지사님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